‘영산강 뱃길 복원’ 축복인가 재앙인가

■ ‘영산강포럼’ 창립대회 뜨거운 논란

贊 “광주를 항구도시로…2급수 개선”

反 “경제성 떨어지고 환경파괴 우려”

물고기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영산강에 배를 띄울 수 있을까?

‘영산강 뱃길 복원’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와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면 수조원에 달하는 건설비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지고, 강 바닥을 파내고 강 흐름을 직선화하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여론도 높다.

‘영산강 뱃길 복원’의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논의하게 될 ‘영산강포럼’(위원장 김성진)이 지난 3일 광주에서 창립대회를 했다.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이다.

광주시 서창~목포시 영산강 하구언에 이르는 75.6㎞에 달하는 영산강에 수심 6m, 폭 200m의 뱃길을 만들자는 게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이다. 뱃길을 통해 2천500t급의 바지선이 오갈 수 있어 광주를 내륙 항구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또 뱃길을 따라 강변도로를 만들고, 생태공원 등을 조성해 영산강 주변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에는 최소 7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포럼’ 김성진 위원장은 “낙후된 전남 중부권을 내륙 물류의 거점으로 성장 시킬 수 있고,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해 수자원을 보존할 수 있어 오히려 경제적”이라면서 “수심·폭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준설작업만 하면 충분히 뱃길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뱃길 복원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갈수록 영산강의 오염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조사 의뢰한 ‘영산호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영산호 상류지역 일부 구간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농업용수 수질 기준인 4급수(8ppm)를 넘었다.

부영양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총인(T-P)과 총질소(T-N)도 대부분 지점에서 5급수를 초과했으며, 물이 풍부한 몽탄대교 지역은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6등급으로 나타났다.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강 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이 포함된 진흙인 ‘오니’(汚泥)를 파내기 때문에 뱃길 복원 사업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퇴적 오니 준설 효과는 상류인 광주천 등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3년 이내에 다시 토사가 쌓여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광주~목포간 수송 화물량이 적고 ▲육로 이동시간이 1시간30분에 불과하며 ▲호남선 복선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뱃길 필요성 감소 ▲7천억~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공사비 등의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산강 뱃길 복원’의 경제성·환경성을 연구·논의할 ‘영산강 포럼’ 창립대회가 지난 3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창립대회에서는 안양대학교 추부길 교수 등이 ‘뱃길 조성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공기·수돗물 ‘깨끗’

중금속 대도시 중 가장 낮고…수질 기준도 적합

광주시 대기에 포함된 크롬과 니켈 등 중금속이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국내 7개 대도시 중 가장 낮고, 수돗물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 중금속 비중 낮아=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5일 “지난 10월부터 광주지역 대기 중에 포함돼 있는 중금속 7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크롬·니켈·카드뮴 등이 다른 대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량 통행이 많은 ▲서구 농성동 ▲남구 서동 ▲북구 두암동 ▲북구 일곡동 등 4곳에서 4달 동안 총 20회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다.

크롬은 0.0018 ㎍/㎥으로 가장 많은 부산 0.0127 ㎍/㎥에 비해 7배가량 낮았다. 니켈도 0.0031 ㎍/㎥로 최고치를 보인 부산 0.0134㎍/㎥의 4배 이상 덜 검출됐다. 철(0.8633 ㎍/㎥)은 대전(0.0780 ㎍/㎥)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으며, 망간·카드뮴·구리 등은 다른 대도시와 비슷했다.

환경부에서 ‘연간 대기 환경 기준’을 설정해 규제하는 납(0.5㎍/㎥ 이하)은 0.05765 ㎍/㎥으로 인천(0.0950 5㎍/㎥) 등의 절반 수준이었다.

크롬·니켈 등 대기에 포함된 중금속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신경계와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먹는 물도 깨끗=시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달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용연 등 4곳의 정수장 ▲노후수도관 10개소 ▲수도꼭지 120개소의 먹는 물이 기준에 적합했다.

용연·지원·각화·덕남 등 4개 정수장은 미생물·납을 포함한 건강상 유해 무기·유기물질 31개 항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탁도는 0.05~0.07 NTU(기준 0.5 이하), 소독 후 생기는 총트리할로메탄은 0.007~0.020㎎/L(〃 0.1 〃), 클로로포름은 0.0049~0.0141㎎/L(〃 0.08 〃)로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다.

북구 임동·광산구 신촌동 등 노후 급수관 10개소에서도 암모니아성 질소·일반세균·총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아연도 0.000~0.011㎎/L(〃 1.0 〃)로 낮게 검출됐다.

동구 12개소·서구 25곳·남구 20곳·북구 40곳·광산구 23곳 등 일반 가정 120곳의 수도꼭지에서 받은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일반세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잔류염소는 0.16~0.65㎎/L로 소독 상태도 양호했다. 시는 정수장에서 일반 가정으로 수돗물을 보낼 때 오염을 막기 위해 0.1㎎이상의 염소가 함유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 중 중금속이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일반 가정에 공급된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약간 나는 것은 수돗물이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함을 의미하므로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피해

2035년 자카르타 공항 잠겨

지구촌의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뿐 아니라 수도인 자카르타도 고지대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후 관련 학자들이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3~14일)에 참석 중인 영국의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턴은 5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해수면 상승과 폭풍우에 섬 국가들이 취약하며 인도네시아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기후보고서에 따르면 금세기에 지구 온도가 섭씨 1.1~6.4도 상승하면 해수면은 18~59㎝가 올라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반둥공과대학의 기상학자인 아르미 수산디 교수도 “2080년까지 매년 해수면이 0.5㎝씩 상승하고 저지대에 위치한 수도 자카르타 앞바다는 이보다 높은 0.87㎝씩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은 해수면 속도를 감안하면 2080년에는 파푸아 섬의 10%, 자바와 수마트라 각각 5% 등 모두 40만 ㎢의 국토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기후학자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인구 2억2천600만 명 가운데 절반 가량 거주하는 자바섬을 첫 손에 꼽고 있다. 자바섬의 자카르타·수라바야·세마랑 등 인도네시아 3대 도시는 산업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파괴돼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고지대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카르타는 2035년에 국제공항이 물에 잠기고, 2080년에는 바닷가에서 10㎞ 떨어진 대통령궁이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